

우리학교 평균 강의실 활용률 54.5% ‘공유개념’ 강조하는 규정 개선 주목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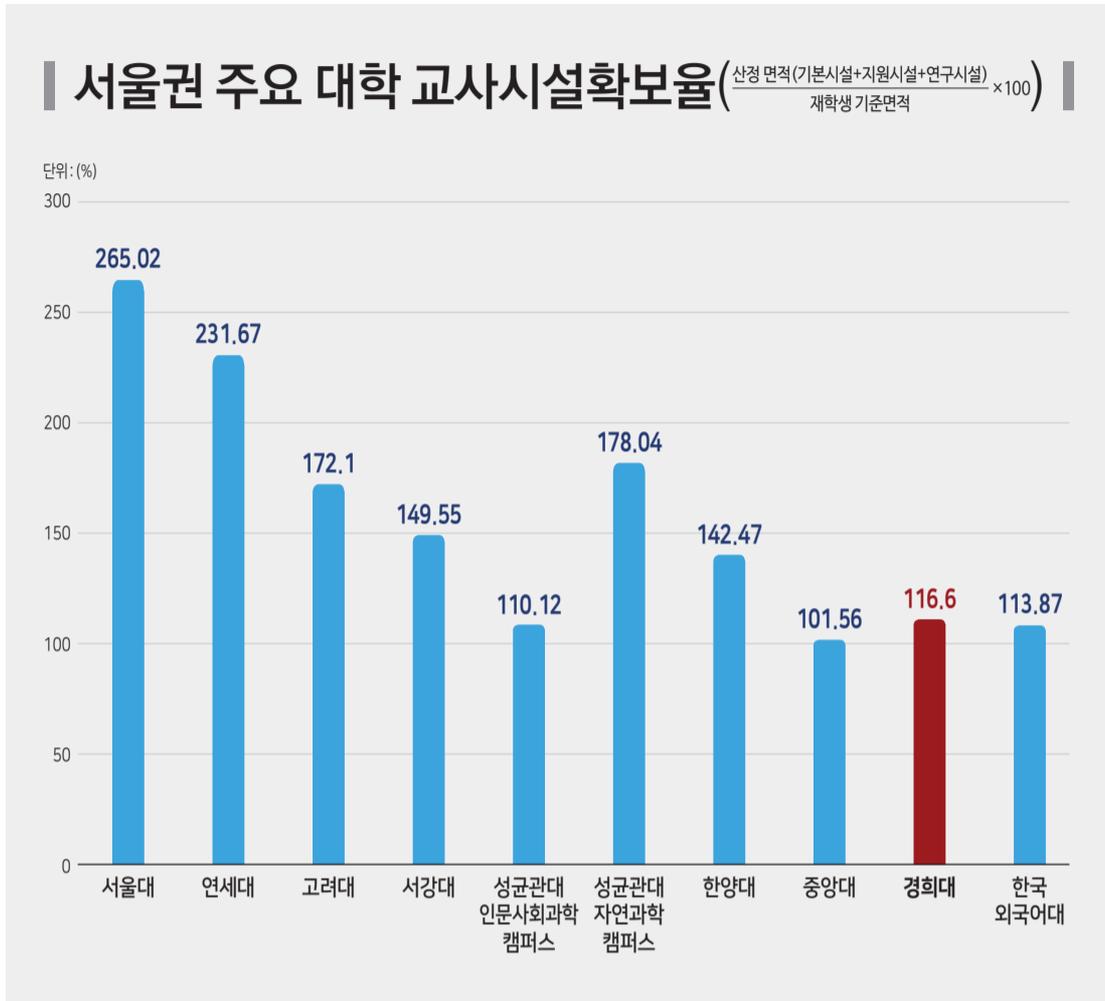
서울캠퍼스는 2017년 Space21 건물을 준공해 3개 단과대학이 이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과대학 및 사용자들의 공간 부족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 번 배정된 공간은 대학 특성상 독점화돼 효율적인 공간 운영과 순환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학교는 총무관리처장, 캠퍼스 학무부총장, 그리고 기획조정처장 등으로 구성된 공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교내 공간관리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학내 공간의 활용 현황과 공간 관리제도의 개편 방향성을 살펴본다.

우리학교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학교별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에 따른 우리학교의 확보율은 서울권 주요 대학 중 하위권이다. 교사시설 확보율은 강의와 연구시설 등의 학내 건물을 의미하는 교사가 확보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더한 산정 면적을 재학생 기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할 수 있다.

기본시설에는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행정실 등을 포함하며 지원시설에는 ▲체육관 ▲실습공장 ▲기숙사 등이 해당된다. 연구시설로는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산정 면적은 ▲기본시설 352,471㎡ ▲지원시설 113,227㎡ ▲연구시설 79,199㎡이다. 따라서 해당 산정 면적을 우리학교의 재학생 기준 면적인 467,269㎡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도출된 교사 시설 확보율은 116.6%다.

타학교의 경우 ▲서울대 265.02% ▲연세대 231.67% ▲고려대 172.1% ▲서강대 149.55%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110.12%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178.04% ▲한양대 142.47% ▲중앙대 101.56% ▲한국외대 113.87%다. 이 중 가장 높은 교사시설확보율을 보인 서울대의 경우 기본시설의 교사 확보율은 우리학교보다 84.7%p 많았으며 지원시설은 51.8%p, 연구시설은 44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의 교사시설확보율은 서울권 주요 대학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간 부족 토로하는 단과대 더딘 개선 움직임에 불편

각 단과대학은 공간 부족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는 바 있다. 지난 3월 열린 소통간담회에서는 각 단과대학의 대표자가 참석해 단과대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중 ▲음악대학 ▲약학대학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미술대학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연습실 신설 및 공간 보장 ▲미술대학 휴게 공간 마련이 제시됐다.

미술대학 장윤정(회화과 2021) 학생회장은 “휴게 공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기실 공간에서 대부분의 학우들이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휴게실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몇 달 전에도 미술대학 학생회 공식 SNS의

메신저로 이와 같은 요청이 왔었다”며 “휴게 공간을 새롭게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학생회 차원에서 요청을 드릴 생각이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간 배정의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 부재로 공간 조정 과정은 돌파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면밀한 교내 공간 활용 현황 분석 공간 관리제도 개편 초석 될까

본부 측에서도 공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간 운영·관리 체계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공간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간 운영·관리 체계화 방안에는 ▲타 대학 사례 ▲공간관리 기준 정립을 위한 추진 방향 ▲단과대학별 주요공간 사용현황 ▲단과대학별 강의실 및 실습실 활용률 분석 ▲단과대학별 강의편성 및 수강생 현황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는 타 대학의 공간관리제도를 참고하고 우리학교의 공간 활용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공간관리제도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국내 27개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공간 활용 효율성 평가’를 도입했다. 해당 평가는 매년 교육부에서 시행되며 공간 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과 공간의 경우 회수 또는 초과 공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때 해당 평가에는 ‘공간활용률’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는 해당 강의실의 주당 수업 시수를 45(1일 9h×5일)로 나눠 산출되는 ‘강의실별 활용률’을 포괄한다. 이에 따른 2020년 국립대학의 강의실 평균 공간 활용률은 52.8%이며 실험실실은 28.8%다.

우리학교 역시 ‘강의실별 활용률’을 이용해 강의실과 실습실의 활용률을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우리학교의 평균 강의실 활용률은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54.5%다. 이 중 ▲이과대학(63.6%) ▲공과대학 (62.4%) ▲외국어대학 (62.3%) ▲간호과학대학 (61.5%) ▲응용과학대학 (60%)이 60% 이상의 강의실 활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예술·디자인대학 (13.3%) ▲치과대학 (37.8%) ▲한의과대학 (38%) ▲호텔관광대학 (39.6%)

등이 가장 낮은 강의실 활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 외에도 25개의 단과대 중 15개의 단과대가 평균 강의실 활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편 실습(실기)실의 평균 활용률은 32.6%다. 무용학부가 63.6%로 가장 높은 실습(실기)실 활용률을 보였으며 ▲공과대학 (55.7%) ▲예술·디자인대학 (47.7%) ▲이과대학 (43.3%) ▲전자정보소프트웨어융합대학 (42.5%)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습(실기)실을 이용하고 있는 18개의 단과대의 과반인 10개의 단과대가 실습(실기)실의 평균 활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체육대학 (14.6%) ▲한의과대학 (14.8%) ▲응용과학대학 (19.5%) 등을 위주로 실습(실기)실의 활용률 개선 방안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의실과 실습(실기)실 모두 과반의 단과대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에, 공간관리위원회는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의 조치로 활용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또한 계획돼 있다. 공간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공간관리규정」과 「공간관리시행세칙」은 우리학교 규정관리시스템에 게시된 기존 「공간관리위원회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 개정안이 “공간의 공유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4조(공간활용률 평가)엔 매년 공간 활용률을 산출해 강의실 및 실험실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제8조(대학/학과 공간 배정 및 사용원칙)는 사용률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강의실에 대해 타 학부(과) 및 타대학과 공동사용 조치를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18조(공간사용료 징수) 등 새로운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공간사용료는 공간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배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이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현재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졌고 지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공간의 사유화보다는 공간의 공유 개념을 더 강화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구성원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베이스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간관리제도 개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